

복원 문제 및 해설



2015. 4. 18
통합 소방직 국어[복원]

국 어

이경복
교수님

●다음카페: <이경복 알맹이 국어>

●대전 한국공무원학원, 울산 중앙고시학원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②	④	③	④	①	②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②	④	③	?	③	①	④	③

총 평

복원된 것을 토대로 살펴보면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평이해 보입니다.

출제문항을 분석하면 1) 문법 6문항-음운변동, 음운의 개수, 띄어쓰기, 로마자표기, 수사어문문, 높임표현 2) 어휘/한자 4문항 - 한자성어, 속담, 한자어의 쓰임 3) 문학 7문항 -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문학 지식 4) 독해 3문항 출제되었다.

소방직의 문학 출제의 비중은 이번에도 7문항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되었습니다. 문학 영역은 <우리 동네 구자명 씨>같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처음 출제되는 낯선 시를 비롯하여 <용비어천가>,<상춘곡>같은 고전문학 지문과 <들길에 서서>,<만무방>같은 익숙한 작품들도 출제되었습니다. 가전체의 의인화 대상을 묻는 문학 지식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법 영역은 비교적 쉽게 출제되어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음운의 개수를 묻는 문제, 유음화와 구개음화의 음운변동을 묻는 문제, 수사어문문 문제, 로마자 표기 문제 등 이론 문법과 어문규정에 대한 문제 등 6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어휘/한자 영역은 특이하게 속담 문제가 2문항이나 출제되었고 한자성어 1문항, 한자어의 쓰임 1문항 출제되었습니다. 비문학 독해 영역은 3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언어예절, 고유어, 2014년 개정된 문장부호와 표준어, 고전산문 장르, 작문(쓰기) 영역, 한자의 독음과 표기 문제 유형 등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문학 출제 비중이 높아서 지문 읽고 문제 풀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적으로 소방직 시험은 문학 출제 비중이 높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 경향은 유지되었습니다. 일반행정직 시험생과는 달리 문학 분야에 대한 절대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통합 소방직 시험은 비공개시험이므로 구술과 정보 검색으로 최대한 복원하였습니다. 다소 복원이 미흡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1. 다음 중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 서류는 아직 ()를 받지 못 하였다
시위대와 경찰이 ()했다.
그 사람은 재산 ()혐의로 고발 당했다.

- ① 결재(決裁), 추돌(追突), 은둔(隱遁)
- ② 결재(決裁), 충돌(衝突), 은닉(隱匿)
- ③ 결제(決濟), 추돌(追突), 은둔(隱遁)
- ④ 결제(結濟), 충돌(衝突), 은닉(隱匿)

【정답】 ②

적절한 한자어의 선택 문제이다. '서류를 결재하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다. 재산을 은닉하다' 가 맞는 표현이다.

결재(決裁): 상사의 허가, 승인을 얻다. 서류 결재

결제(決濟):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카드 결제, 어음 결제, 현금 결제

추돌(追突): 자동차가 기차 따위가 뒤에서 들이 받음.

충돌(衝突): 서로 맞부딪치거나 맞섬

은닉(隱匿):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은둔(隱遁): 세상일을 피하여 숨음

2. 다음 중 발음 과정에 나타난 음운 변동 규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신라[실라] ㉡ 해돋이[해도지]

- ① 유음화, 구개음화
- ② 구개음화, 유음화
- ③ ㄴ첨가, 구개음화
- ④ ㄴ첨가, ㄹ탈락

【정답】 ①

표준발음법의 음운 변동 현상 문제이다. 신라→[실라]로 발음되는 현상은 'ㄴ' 음이 'ㄹ' 음 앞에서 'ㄹ' 로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다. 해돋이→[해도지]로 발음되는 현상은 'ㄷ, ㅌ' 음이 'ㅣ' 모음 앞에서 'ㅈ, ㅊ' 음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이다.

3. 다음 중 지문과 입장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복원미흡]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지문

- ① 기록함으로써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
- ② 한 번의 실수로 지나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 ③ 상과 벌에 대한 기록이 될 수 있다.
- ④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정답】 ②

비문학 독해, 글쓴이의 관점 파악 문제 유형이다. 선택지의 나머지는 '생활기록부의 지니는 긍정적 측면' 을 언급하였는데 ②는 부정적 측면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선택지간의 입장이 다른 하나는 ②이다.

4. 다음 중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울산 - Ulsan
- ② 설악 - Seorak
- ③ 종로 - Jongno
- ③ 호법 - Hobeob

【정답】 ④

문법 어문규정. 로마자 표기법 문제이다. ④ 호법의 올바른 로마자 표기는 'Hobeop'이다.

5. 다음 중 가전체 문학 작품과 의인화된 사물을 짝지은 것 중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국순전 - 술
- ② 공방전 - 엽전
- ③ 저생전 - 돼지
- ④ 정시자전 - 지팡이

【정답】 ③

문학 이론. 가전체 작품의 대상을 묻는 문제이다. ③의 저생전은 '돼지'가 아니라 '종이'를 의인화한 작품이다.

6. 다음 중 음운의 개수가 가장 많은 단어를 고르시오

- ① 소화기
- ② 인화성
- ③ 안전모
- ④ 방열복

【정답】 ④

문법 음운론. 음운의 개수를 묻는 문제이다. 초성의 'ㅇ'은 음운이 아니다. 음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방열복'으로 8개이다. ① 소화기-6개 ② 인화성-7개 ③ 안전모-7개 ④ 방열복-8개

7. 다음 보기 중 어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소녀가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렸다 - '드렸다'는 주체 높임법이다.
- ② 선생님은 딸이 계시다 - '계시다'에서 '있으시다'로 바꾼다.
- ③ 기한이 되시면 맞춰 주세요 - '되시면'을 '되면'으로 바꾼다.
- ④ 저희 나라는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 '저희 나라'를 '우리나라'로 바꾼다.

【정답】 ①

문법 높임표현 문제이다. ①의 '드렸다'는 주체 높임법이 아니라 객체 높임법이다. '빚다,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는 객체 높임법을 나타내는 어휘이다. ② - '있다'의 간접높임은 '있으시다'이다. ④ - '나라, 겨레, 민족'은 절대적 높임의 대상이므로 '저희'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라고 해야 한다.

8. 다음 보기를 읽고 설명이 가리키는 것을 고르시오 [복원미흡]

지문

- ① 비석치기
- ② 연날리기
- ③ 고무줄놀이
- ④ 딱지치기

【정답】 ②

복원미흡, 비문학독해 중심화제 파악 문제 유형이다. 정답은 연날리기이다.

9. 지문 내용 중 밑줄 친 것을 수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복원미흡]

- ① 한해
- ② 바람
- ③ 년초
- ④ 할 지

【정답】 ②

복원미흡. 띄어쓰기 문제로 추정됨. 정답은 ② ‘바람’ 이다. ①은 관형사 ‘한’ 다음에 띄어 쓰는 것이고 ②의 ‘바람’ 은 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 ‘인 의존명사가 되어 띄어쓰기를 맞게 한 경우이고 ③의 ‘년초’는 ‘어떤 기간의 처음’이나 초기의 뜻 ‘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 ④ ‘할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지 ‘의 쓰임이 아니고 연결어미인’ ㄹ지 ‘의 형태이어서 붙여 써야 되는 경우의 예문으로 보인다.

10. 다음 보기 안에 밑줄 친 의미와 다른 한자성어를 고르시오

지문의 밑줄 친 재난은 발생한 뒤 수습하기가 어렵다는 내용

- ① 실마치구(失馬治廐)
- ② 연목구어(緣木求魚)
- ③ 망양보뢰(亡羊補牢)
- ④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정답】 ②

한자성어. 주어진 문맥에 맞는 적절한 한자성어 문제 유형이다. 주어진 지문은 ‘재난은 발생한 뒤 수습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일이 일어 나고 난 후에 뒤늦은 후회한다’와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찾으려 한다. ③의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실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고자 할 때’ 쓰는 경우이다.

- ① 실마치구(失馬治廐): 말을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으로, 실패한 뒤에 손을 쓴다는 말
- ②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쓰는 말
- ③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고서 우리를 고친다.
- ④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죽은 후에 약 처방을 한다.

11. 다음 보기의 빈 칸에 알맞은 것은?

덱 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궐 무서지라 웨느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醬(청장) 으스스흐는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젓이라 흐렴은

- ① 게
- ② 거북이
- ③ 자라
- ④ 문어

【정답】 ①

고전문학 고시조 내용 중 빈칸 추리하는 문제이다. 지문의 사실시조는 게젓장수 주제에 어려운 한자어구를 사용해 게젓을 파는 게젓장수의 허세와 위선에 대한 풍자의 내용이다. 중장의 시구를 해석하면 ‘걸은 딱딱하고 속은 살이 있고, 두 눈을 하늘을 향하고 앞으로 뒤로 갔다가 작은 다리가 8개, 큰 다리가 2개’인 것을 통해 ‘게’임을 유추 할 수 있다.

12. 수사 의문문이 아닌 것은?

- ① 이 고장 특산물이 무엇인가요?
- ② 내가 널 못 당할쏘냐?
- ③ 이 사무실 공기가 좀 탁하지 않니?
- ④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할 일이 없을쏘냐?

【정답】 ①

문법 문장론. 의문문의 종류에 대한 문제이다. 의문문에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의 종류가 있다. ‘수사 의문문’은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 등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이다. 의문사가 포함되어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이고, 의문사 없이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이다. 따라서, ①은 의문사 ‘무엇’을 사용하여 고장의 특산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나머지 ②, ③, ④은 수사의문문이다.

13. 다음 시를 읽고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맞벌이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된 아기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씨’

- ①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리고 있다.
- ② 부조리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②

문학-현대시. 시의 내용과 표현에 대한 문제이다. 지문은 고정희의 ‘우리 동네 구자명씨’이다. ‘여성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을 주제로 하는 시이다. 구자명 씨는 직장 생활과 가사 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현대 여성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부조리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②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①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시의 시적화자는 구자명 씨를 관찰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화자가 아니라 구자명 씨이다.



고정의 <우리 동네 구자명 씨> 핵심 요약

- 1.갈래: 자유시, 서정시
- 2.성격: 비판적, 동정적
- 3.표현상의 특징
 - ①영화의 오버랩 기법처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여성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다.
 - ③시상 전개가 구체적 인물에서 시상을 전환하여 보편적 사회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 4.주제: 여성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14. 다음 보기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千世(천 세) 우희 미리 定(정)ᄒᆞᆫ 산 漢水(한수) 北(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ᄒᆞᆫ 卜年(복년)이 궁업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ᄒᆞᆫ샤,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르쇼셔. 落水(낙수)에 山行(산행)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 ① ‘미리 定(정)ᄒᆞᆫ 산’ 은 하늘이 미리 정했다는 내용이다.
- ②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었다.
- ③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였다.
- ④ 산행은 ‘등산’ 이라는 의미이다.

【정답】 ④

고전문학-악장. 고전문학에 나타난 내용과 표현에 대한 문제이다. 지문은 한글로 최초 기록된 <용비어천가>의 제125장이 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글자인 '△(반치음)'과 ':(아래아)' 의 사용이 나타나 있으며,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연철표기가 나타나 있다. 그런데, ④의 설명은 적절치 않다. ‘산행’ 은 등산이 아니라 사냥의 뜻이다.



제125장의 해석

천 년전에 미리 (도읍지로)정하신 한강 북쪽[한양]에 인덕(仁德)을 쌓아 개국하시어 점지에 받은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으니, (그러나)성자 신손이 대를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부지런히 힘쓰셔야, (국권이)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후대)임금이시여, (다음의 역사적 사실을) 아소서. (하나라 태강왕이)낙수에 사냥하러 가 있어 (백 일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드디어 폐위를 당하였으니 태강왕처럼) 할아버지[조상]만 믿으시겠습니까?

15. 다음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푸른 산이 환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①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유사성을 말하고 있다.
- ③ 어조 변화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④ 밝음과 어둠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내포하고 있다.

【정답】 ③

문학-현대시. 시에 사용된 내용과 표현에 대한 문제이다. ① 푸른색의 색채어 반복을 통해 화자 정서를 고조했다. 맞는 설명이다. ② 푸른산과 나의 대비를 통해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우고 있고,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맞는 설명이다. ③ 어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일관되게 현실적 고통속에서도 이상적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틀린 설명이다. ④ 저문 들길의 어둠의 이미지와 푸른 별, 푸른 하늘의 밝음의 이미지 대립을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삶을 나타내고 있다. 맞는 설명이다.

16. 다음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복원미흡]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흐고, 냇 사름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못쳐 이서 至樂(지락)을 맛볼 것가. 數間茅屋(수간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얹피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어서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행화)난 夕陽裏(석양리)에 뛰여 잇고,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못내 게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興(흥)이익 다를소냐.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亭子(정자)에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음영)하야, 山日(산일)이 寂寂(적적)하디, 閑中眞味(한중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정극인 <상춘곡>

- ① ‘홍진’과 ‘수간모옥’은 대조되는 뜻이다.
- ② ?
- ③ ?
- ④ 감각적인 시어로 구체화 하였다.

정답]

문학-고전시가. <상춘곡>정극인, 복원이 미흡하여 정답을 알 수 없음.

17. 다음 중 속담과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굵은 나무 선산 지킨다 - 쓸모 없는 것이 오히려 할 일을 한다.
- ② 못 먹는 버섯이 3월에 난다 - 좋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일찍 나돌아 다닌다.
- ③ 봄별은 며느리가 맞게 하고 가을별은 딸에게 맞게 한다 -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보다 더 예뻐한다.
- ④ 거문고 인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 - 처지도 못 되는 이가 남이 하니까 덩달아 따라하며 웃음거리가 되었다.

정답] ③

어휘-속담. 속담의 뜻을 묻는 어휘 문제이다. ③의 ‘봄별은 며느리가 맞게 하고 가을별은 딸에게 맞게 한다’ 속담은 신선한 가을별에는 딸을 꺾이고 살갓이 잘 타고 거칠어지는 봄별에는 며느리를 꺾인다는 뜻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제 딸을 더 아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의 설명은 반대로 되었으므로 정답이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8~19번)

전과자요 떠돌이 신세인 응철은 추수때에 송이 파적이나 하는 만무방이다. 깊은 산골 어느 가을날, 시장기를 느껴 송이를 먹던 응철은 고기 생각이 나자 근처에 돌아다니는 닭을 잡아 먹는다. 숲에서 나온 응철은 성팔이를 만나 응오네 논이 벼를 도둑 맞았다는 말을 듣고 성팔을 의심한다. 응철이도 5년 전에는 처자식이 있던 성실한 농꾼이었다. 벼를 갚을 방법이 없어 한밤중에 도망을 나와 구걸로 연명하다가 아내의 제안으로 헤어진 뒤부터 절도와 도박 등으로 살아가다가 감옥까지 드나들게 되었다. 그러다가 동기간이 그리워 아우 응오네 동네로 들어 오게 된 것이 한달전이다. 응오는 순박하고 성실한 모범 농꾼이었지만,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장리쌀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도리어 빚만 늘어가게 되자. 올해는 벼를 베지 않고 있었다. 병을 앓아 송장 같은 아내에게 약을 달여 먹이던 응오는 응철을 보자 아내를 위해 산치성 드릴 것을 의논해 온다. 이런 상황에서 베지도 않은 논이 벼를 도둑맞자 전과자인 자신이 도둑으로 몰릴 것을 예상한 응철은 오늘 밤 도둑을 잡은후 마을 을 떠나가기로 결심 한다.

산길을 오르다 바위 굴 속에서 노름판을 발견한 응철은 노름판에 잠시 끼었다가 서낭당 앞 돌에 앉아 덜덜 떨며 도둑을 잡기 위해 잡복한다. 닭이 세 회를 울때, 복면을 한 그림자가 나타나 벼를 훔치는 것을 보자, 응철은 격투 끝에 도둑을 잡아 복면 을 벗기고 망연자실한다. 범인을 다름 아닌 응오였던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응철은 황소를 훔치고자 응오를 달랬지만, 부질없다는 듯 형의 손을 뿌리 치고 달아나는 응오를 몽둥이질로 쓰러뜨린다. 응철은 한숨을 쉬며 응오를 업고 고개를 내려온다

- 김유정 <만무방>

18. 이 글에서 응오의 신분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소작농
- ② 자작농
- ③ 지주
- ④ 아전

정답] ①

문학-현대소설. 인물의 신분을 묻는 문제이다. <만무방>에서 응철이는 가족과 헤어진 후 산으로 돌아다니며 버섯이나 뜯어 먹고 목숨을 이어나가면서 도박이나 절도 등의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에 동생 응오는 모범적 소작농이지만 자신이 애써 가꾼 벼를 자기가 도둑질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러니에 놓인다. 작가는 응오를 통해 자기의 논을 훔치지 않으면 다 뺏겨서 먹고 살 수 없는 모순된 현실을 익살스러운 웃음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19. 응오가 처한 상황으로 알맞은 속담을 고르시오

- ① 자는 범 코침 놓다
- ② 나간 놈 집 구석이다.
- ③ 가는 손님 뒤쪽지 예쁘다
- ④ 재주는 꿈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정답] ④

문학-현대소설. 주어진 작중상황에 알맞은 속담 어휘를 찾는 문제이다. 응오는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장리쌀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도리어 빚만 늘어가게 되자. 올해는 벼를 베지 않고 있었다를 통해 유추 할 수 있다. 결국 힘들여 일해도 돌아 오는 것은 없는 신세이다. ④의 속담이 맞는 표현이다.

20. 다음 자료를 읽고 조선시대 상속에 대해 알 수 없는 내용은? [복원미흡]

조선시대 상속에 대한 지문

- ① 조선에는 재산 내용에 관한 기본 법전이 있었다.

- ② 고려시대에는 재산이 많은 여성이 있었다.
- ③ 첩의 자식에게도 공평하게 재산 분배를 하였다.
- ④ 재산 분배에 있어 유일한 차별은 장례를 지내는 자녀에 관한 것이다.

정답] ③

비문학독해-내용일치. ③ 첩의 자식에게도 공평하게 재산 분배를 하였다는 내용을 주어진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다. 지문 복원이 미흡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